



20일 서울 더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경영대상' 시상식에서 고창군이 '친환경공공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고창 대한민국 경영대상 친환경부문 대상

친환경 공공부문 3년연속 수상 운곡습지복원등 환경정책공로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천혜의 자연생태의 가치를 자산으로 관광자원 개발과 친환경·친자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2017 대한민국 경영대상'을 수상했다.

고창군은 지난 20일 서울시 더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친환경 공공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상은 동아일보사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며 기업과 공공기관의 중장기적 성과를 평가하고 지속적인 성장발전 가능성을 평가

해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하면서 국가경제 발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창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자연생태자원을 보전하면서도 현명하게 이용해 운곡습지 복원, 친환경 숙박시설인 에코촌 조성 등 관광자원화하고, 갯벌 생태계 복원 등 지속적인 친환경·친자연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운곡습지 일원에 복원을 위해 습지체험장, 탐방로, 생태숲길과 전망대 조성을 완료했고, 운곡습지와 생물권보전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의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운곡습지와 고창갯벌 등 생태자원을 활용해 주변 마을의 향토

음식과 지역농산물 판매, 농어업체협이 어우러진 관광자원개발과 농어업정책들을 펼쳐가면서 고창만의 특색이 살아있는 정책들에 집중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이번 수상으로 고창군이 가진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의 인지도 향상과 친환경 지역 이미지를 정착시켜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군민이 행복한 아름다운 청정 자연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친환경 정책이 3년 연속 '대한민국 경영대상'을 수상하면서 굳건한 입지를 다지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준원기자 jwkim@